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변 우 열(Woo-Yeoul, Byun)*

< 목 차 >

- I. 서론
 - 1.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의 배경과 목적
 - 2.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의 방법과 제한점
 - II.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의의와 현황
 - 1.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의의
 - 2.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현황과 개요
 - III. 현장방문 및 면담결과 분석
 - 1. 지원사업 추진체계
 - 2.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 3.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 4. 장서확충
 - 5.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강화
 - 6.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 7.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 IV.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개선 방안
 - 1. 지원사업 추진체계
 - 2.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 3.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 4.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 5.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 V.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의 방법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장학사, 학교장, 부장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평가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4대 중점 추진과제인 ①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②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강화 ③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④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지원사업 추진체계,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추가하였다.

주제어 :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평가

Abstrac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in conducting the first year project of a five-year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to the present system for the following years. The method of evaluation was to visit the 16 local ministries of education and to interview the government school inspectors, school principals, teachers-in-chief, teacher librarians and parents.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school library facilities and increase in collection, enrichment of education program through school library, location of manpower and enhancement of profession and building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dditionally, school library service training and library support system were evaluated.

Key Words :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evaluation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wybyun@kongju.ac.kr)

· 접수일 : 2004. 8. 23 · 최종심사일 : 2004. 9. 1 · 최종심사일 : 2004. 9. 8

I. 서론

1.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의 배경과 목적

가. 평가의 배경

오늘날 학교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혁신의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는 핵심수단이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종합 방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 추진과제는 ①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②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강화 ③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④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며,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종합방안의 1차년도 사업으로 2003년에 전국 1,25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현대화, 장서확충 지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도 제고, 학부모 등 민간단체의 참여와 지원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에 처음 추진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운영실태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만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나. 평가의 목적

학교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교과서 이외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질적 우수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풍부한 정보환경에서 다양하게 책을 읽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핵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미래는 물론 교육환경의 변화를 결정짓는 주요 정책이다.

따라서 2003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평가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학사, 학교장, 부장교사, 담당교사, 학부모 등과의 면담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둘째, 2003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의 예산 배정은 적절했는지, 사업진행에 애로점은 없었는지, 추진방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추진주체(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로 역할과 지원이 적절했는가를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추출한다.

2.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의 방법과 제한점

가. 평가의 방법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장학사, 학교장(감), 부장교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면담조사시에 활용하였다. 특히, 학교장, 부장교사, 도서관 담당교사는 학교 급별로 안배하여, 도교육청은 시·군, 읍·면, 리 등의 지역안배를 고려하고, 시 지역의 교육청은 인구밀집 여부, 학교 급별 등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나. 평가의 제한점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한다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추어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 정보활용능력, 독서 및 사고능력 등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미흡하고, 운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운영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II.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의의와 현황

1.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의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2년도에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의해서 추진되는 5개년(2003~2007) 계획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수립한 최초의 정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장서, 재정, 인력, 운영계획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관활용수업 방안까지 포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중심부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000억원이 투입(특별교부금+지방비)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4대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¹⁾.

①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우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장서로 인해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학교도서관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맞게 학교도서관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규모에 따라 교실 2~4칸 정도의 학교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한 모든 학교가 최소한 교실 2칸 규모의 학교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학교, 과밀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학생 1인당 장서량을 2003년 현재 평균 5.5권에서 2007년까지 10권 이상으로 확보하여 독서교육은 물론 교수-학습지원에 필요한 장서도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투입되는 예

1) 오승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pp.65-89.

산을 활용하는 한편 매년 각급 학교 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편성하여 신간자료 구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과 함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도서관을 연계한 도서관활용수업(LAI : library-assisted instruction)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은 수업준비를 위한 정보자료 제공에서부터 수업의 전 과정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모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과 단위학교의 연간 교육계획서에 도서관 활용교육을 주요사항으로 반영·시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각종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에서 도서관 활용교육을 반영하여 교원들의 도서관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이와 함께 독서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독서활동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근거를 둔 학습독서에 필요한 학교 급별 도서목록을 제공하여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특별활동·재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자료 정리와 대출, 열람의 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교육의 중심시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전담 관리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일반 교과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수업부담과 자료관리 및 대출·반납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하여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은 학습자 중심학습, 수행평가 등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독서교육, 자료중심학습 등 창의적 교육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핵심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도서관 관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반교사, 자원봉사자 등 관리인력의 성격에 따른 연수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학전문가를 육성하여 단위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장학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3호)

들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어 있고,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시설·자료 등 물리적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핵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관련 캠페인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이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와 단위학교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현황과 개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1차년도 사업인 2003년도 사업 지원대상학교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학교 현황

지역	설립주체(학교수)			학 교 급 별(학교수)				지 역 별(학교수)			
	공립	사립	계	초	중	고	계	중·소·초	읍·면	도서벽지	계
서울	82	56	139	56	38	45	139	139			139
부산	24	18	66	24	24	18	66	66			66
대구	33	10	43	22	12	9	43	40	3		43
인천	46	1	47	30	12	5	47	41		6	47
광주	26	6	32	14	10	9	32	32			32
대전	22	6	28	12	8	8	28	28			28
울산	21	0	21	16	2	3	21	16	5		21
경기	190	33	223	115	56	52	223	143	67	13	223
강원	73	0	73	60	8	8	73	23	41	9	73
충북	49	3	52	29	12	12	52	16	36		52
충남	74	11	85	42	22	22	85	14	70		85
전북	76	22	96	43	30	30	96	48	48		96
전남	94	6	100	50	31	19	100	35	60	5	100
경북	108	23	131	61	37	37	131	48	68	15	131
경남	63	39	102	50	30	30	102	64	37	1	102
제주	20	1	21	9	6	6	21	12	9		21
계	1,001	235	1,259	633	338	313	1,259	765	444	49	1,259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단위학교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토록 하고, 예산을 지원한 바 2003년도에는 <표 1>과 같이 전국 1,259개 학교를 대상으로 600억원이 지원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학교의 인적자원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교사가 952명으로 가장 많고, 계약직 사서(198명), 사서교사(9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학교 시·도별 인적자원 현황

지역	인적 자원 유형(인원수)							계
	사서교사	일반교사	기간제 사서	사서직(계약)	행정직원	학부모	기타	
서울	27	90	1	20	1			139
부산	9		3	50			4	66
대구	5	32		1		1	4	43
인천		47						47
광주				32				32
대전	1	20		7				28
울산	4	17						21
경기	11	146	1	64	1			223
강원	2	71						73
충북	1	28		23				52
충남		85						85
전북		96						96
전남	17	83						100
경북	16	115						131
경남		101		1				102
제주		21						21
계	93	952	5	198	2	1	8	1,259

지원대상학교의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은 <표 3>과 같이 국고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 총 6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학교 당 평균 5000만원에 이른다.

<표 3>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학교 시·도별 예산 투입현황

지역	활성화 사업 예산 투입현황 (단위 : 천원)				
	국고	지방비	계	지원학교	학교당 평균
서울	3,266,500	3,266,500	6,533,000	139	47,000
부산	1,650,000	1,650,000	3,300,000	66	50,000
대구	1,075,000	1,075,000	2,150,000	43	50,000
인천	1,175,000	1,175,000	2,350,000	47	50,000
광주	725,000	725,000	1,450,000	32	50,000
대전	700,000	710,677	1,410,677	28	50,000
울산	525,000	525,000	1,050,000	21	50,000
경기	4,794,647	4,855,020	9,649,667	223	43,272
강원	1,825,000	1,825,000	3,650,000	73	50,000
충북	1,294,686	1,641,872	2,936,558	52	47,205
충남	2,125,000	2,125,000	4,250,000	85	50,000
전북	2,200,000	2,200,000	4,400,000	96	45,850
전남	2,500,000	2,500,000	5,000,000	100	50,000
경북	2,850,000	3,050,000	5,900,000	131	45,308
경남	2,550,000	2,550,000	5,100,000	102	50,000
제주	525,000	525,000	1,050,000	21	50,000
계	29,780,833	30,399,069	60,179,902	1,259	47,799

Ⅲ. 현장방문 및 면담결과 분석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방문 및 면담의 주요결과를 지원사업 추진체계, 학교도서관연 연수, 4대 중점 추진과제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 추진체계

① 지원대상학교 선정방법

지원대상학교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의 교육청에서는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를 선정하였다. 반면에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인천,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서는 1차로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1.5~2배수를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초·중등학교의 지원대상학교를 모두 본청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원 대상학교의 선정과 장학체계가 이원화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지원대상학교 선정의 주요과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계획과 선정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단위학교에 통지하여 공모하고, 일정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학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이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하다 보니,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일례로 교실공간의 여유가 없어서 도서관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에서는 의욕이 있어도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불충분하여 단위학교의 계획이 부실하고, 신속·개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4>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장의 의지	2		3	3	1	3				2	2	1		2
지원신청서 내용의 충실성	3	2			2	1	1	1	1	3	3	3	2	1
지침의 준수여부		1					2						3	
학교도서관의 기존 여건	1	3		2	3		3	3	3		1	2	1	
운영인력의 확보상태						2								3
운영예산 및 대응투자			2					2						
교육청(지역)별 안배				1					2	1				
기타:우선 학교 여부			1											

※ 셀 안의 숫자는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임.

지원대상학교의 선정기준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별로 매우 다양하며, ‘지원신청서 내용의 충실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학교도서관의 기존여건, 학교장의 의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원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심의단 이외에 관련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전체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저소득 지역 및 농어촌 소재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예산지원 방식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예산을 균등 분배하거나 일정기준에 의거 차등 분배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기, 울산, 충북교육청 등에서는 지원예산을 차등 분배하고 있으며, 예산 차등분배의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예산 차등 분배의 기준

지역	차등 분배 기준
대구	· A: 20% 선정, 5,500만원 · B: 60% 선정, 5,000만원 · C: 20% 선정, 4,500만원
인천	· 연구학교 6천만원, 12학급 미만학교 4천만원
광주	· 학교도서관 규모, 기존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울산	· 리모델링의 경우 : 소규모 3천만원, 중대규모 4천만원 · 미설치 학교 : 소규모 4천만원, 중규모 4천만원, 대규모 5천만원 · 교육부, 광역시교육청 도서관정책연구학교의 경우 : 6천만원
경기	·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도서관의 규모
강원	· 4,000만원: 학급 수 7학급 미만, 재적 학생수 245명 이하 · 5,000만원: 학급 수 7학급 이상, 35학급 미만, 재적 학생 수 1,200명 미만. · 6,000만원: 학급 수 35학급 이상인 학교, 재적 학생 수 1,200명 이상인 학교
충북	· 초등 19학급 이상: 5,400만원, 초등 13~18학급: 4,700만원, 초등 12이하: 4,000만원
경북	· 학생, 학급 등 학교의 규모
경남	· 학교 규모
제주	· 학급수에 따른 규모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학교 심사 총점에서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로 구분하여 차등 분배하였다. 강원과 충북교육청에서는 주로 학급 규모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고 있으며, 울산교육청과 같이 리모델링 학교, 미설치 학교, 정책지원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차등 분배한 경우도 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수, 설치면적, 기존 도서관의 여건, 보조인력 채용 여부를 점수화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교실 5칸 규모의 대형 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일반교실의 벽면을 헐어서 2~3칸 규모의 도서관을 확보하는 경우와 기존의 공간에 환경 미화 정도의 보수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분명히 시설공사비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설비비와 정보자료 구입비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③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 방식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방식

지원대상학교 지원방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설비기준 제공	✓	✓	✓	✓	✓	✓	✓	✓	✓	✓	✓	✓	✓	✓
운영편람 등 자료제작 배부	✓		✓				✓	✓	✓	✓	✓	✓	✓	✓
학교평가에 학교도서관 반영	✓					✓	✓		✓	✓		✓		✓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제공				✓										
단위학교 방문 컨설팅				✓	✓				✓	✓	✓			
학교장 연수(방법, 횟수 등)	✓	✓	✓	✓		✓	✓	✓	✓	✓		✓		
도서관담당교사 연수	✓		✓	✓		✓	✓	✓	✓	✓	✓	✓		✓
인력지원	✓	✓	✓	✓				✓	✓			✓	✓	
불용도서의 폐기기준 간소화				✓			✓					✓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설비기준 제공, 운영편람 등 자료제작 배부, 학교장 연수 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평가에 학교도서관 반영, 인력지원,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제공 부문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지원에 있어서는 계약제 사서나 사서도우미(보조원) 배치를 위해 예산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공도서관의 지원팀 구성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용도서의 폐기기준 및 절차 간소화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침을 제공하여 한시적인 폐기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부재 혹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은 <표 7>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표 7> 사업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장학사)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도서관 인식부족	2	2	1	3	2	1				1		1	3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3		2									2		
장학인력의 부족	1													1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1	3	2	3	1	2	3	1	2	1	3	1	
예산부족		3		1	1		1				2			2
단위학교의 지도감독의 한계								1						
교실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3		2					3
학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미흡						3		2						
도서관 담당교사의 교육과 연수									3	3	3		2	

※ 셀 안의 숫자는 우선 순위임.

시·도교육청의 장학사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으로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크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부족, 예산부족,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교육과 연수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연수를 통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추진 주체의 역할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주체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사업 추진 주체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주체	사업의 개선 측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기 조정-연말에 차기년도 학교 선정 · 사업확대 및 증장기 계획수립, 비전제시 · 사업비로 인건비 지출 가능토록 지침 수정 · 전담인력 확보 · 전체 예산지원(지방비 부담 절감) · 예산지원의 확대 · 리모델링과 디지털자료실 사업 통합추진 · 장서의 지속적 확보방안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교사 확보(인건비 국고보조) · 교원 총정원제에서 탈피한 별도정원 증원 · 사서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 도서폐기 및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 법적 근거 ·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도서관 활용에 대한 내용 명시 · 학교도서관의 E-book 공동구매, 라이선스 정책 ·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강화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전담 추진 팀 구성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지도·자문 · 교수학습지원센터, DLS 사업 연계 추진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미설치 학교 및 공간이 협소한 학교를 위한 공간 확보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장학체계 마련 · 예산 배정의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팀 상설화 · 사서교사의 점진적 증원 · 도서관 활용수업 모델 개발, 일반화 ·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충원(사업연속성) ·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을 학교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서확보 방안(회계 전출금) · 도서관 활용수업 지침 마련 시달 · 담당교사의 업무경감 대책 마련 · 자치단체의 학교도서관 협력 기반 조성
단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좋은 위치의 학교도서관 공간 확보 · 학교장 및 교사의 인식 제고 · 구체적 사업 설계 · 열람 위주의 도서관 공간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운영비 확보(자체 예산 확보) ·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게 수업시수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간의 공감대 형성 ·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연수 ·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강화 · 내실 있는 협의체 구성 운영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개선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담인력의 확보, 예산 확대, 사업비 전체의 국고지원, 리모델링 사업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사업의 통합추진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지원사업비를 인건비로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담 추진팀 구성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지도·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체계적인 장학체계 마련,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 및 일반교사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도서관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사서교사 확보, 도서폐기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E-book 정책 마련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로는 사서교사의 점진적 증원 및 사서보조원의 배치, 도서관 활용수업 모델 개발, 담당교사의 업무경감, 자치단체의 학교도서관 협력 기반조성 등의 방안이 제기되었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일로는 지속적인 자체예산의 확보,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간의 공감대 형성,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등이 거론되었다.

2.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실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 실적

시·도	구분	교장(감)장학사	담당(사서)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서울	회수/시간	3/10	30/48	15 /30	15/30
	내용	우수사례	활성화 방안		관리와 운영
	강사	교원, 전문직	교수, 전문직	교사, 사서	교사, 사서
대구	회수/시간	1/2	3/6	3/6	6/21
	내용	사업추진방향	활용수업, 독서지도	활용수업, 독서지도	학부모 역할
	강사	전문직	교수	교수	교수, 교사
인천	회수/시간	1/2		2/30	1/3
	내용	사업추진방향		직무연수	도서관 운영
	강사	전문직	교수	교수, 교사 등	사서교사
대전	회수	2	4	4	2
	시간	4	12	8	4
	내용	사업추진방향	운영방안	독서교육	정책 방향
울산	강사	교원, 전문직	전문 강사	교수, 교사	교수, NGO
	회수/시간	1/5	1/7	2/7	1/7
	내용	인식제고	도서관 실무	도서관 실무	도우미 운영
경기	강사	전문직	사서교사	사서교사	사서교사
	회수/시간	2/6	7/56	2/128	13/91
	내용	정책방향	도서관 운영	독서지도	도우미 운영
강원	강사	교수	교수	교수	부총리
	회수/시간	5/3	2/8	1/3	1/4
	내용	사업추진방향	독서교육	독서교육, 운영	인식제고
충북	강사	교수	전문직	교사	NGO
	회수/시간	1/3	1/7		1/2
	내용	사업추진방향	사업추진방향		인식제고
충남	강사	차관보	교수, KERIS		교수
	회수/시간	1/4	3/64	1/4	1/4
	내용	사례발표	사례발표	독서교육	독서교육
	강사	교사, 사서	교수, 교사, 사서	교사, NGO	교사, NGO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5권 제 3호)

경북	회수/시간	2/12	4/78	2/16	9/36
	내용	사업소개	직무, DLS	사업소개, DLS	자원봉사운영
	강사	장학사	교수, 사서교사	교수, 사서교사	교수, 사서교사
경남	회수/시간	1/1.5	1/1.5	1/1.5	1/1.5
	내용	워크샵	워크샵	워크샵	활성화 사업소개
	강사	경남사회정보	경남사회정보	경남사회정보	창원도서관 사서
제주	회수/시간	1/4	-	-	3/12
	내용	사업 소개	-	-	도우미 역할
	강사	차관보 외3	-	-	연구원 외3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감), 장학사, 담당(사서)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분야별 연수의 횟수나 시간, 내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연수만으로는 학교장의 인식변화가 어려우며, 지속적이며, 강도높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사, 교장선생님에 대한 연수가 주로 이론에 치우쳐 실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는 60시간 이하로 시행하다 보니 연수점수가 인정되지 않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통한 자료중심학습, 학교도서관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수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할 당위성이나 이용지도, 독서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1학교에 1명인 학교장(감)과 담당(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그 효과도 가시적이다. 반면에 다수의 일반교사와 학부모를 연수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규모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은 담당교사, 행정직원, 교장, 교감 등 범 학교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고,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선진학교 및 해외의 우수 운영 학교도서관 견학 및 시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면담결과 학교도서관 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도서관의 필수 시설화

과학실이나 컴퓨터실은 「과학교육진흥법」,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사업 시행지침」 등에 의해서 교육필수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컴퓨터실과

과학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선택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늘 우선권에서 밀리고, 일반교실이 부족할 경우에 도서실부터 없애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필수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교실공간이 부족한 학교를 위해서 각종 특별실(예를 들면,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시청각실)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단위학교에서는 컴퓨터실과 도서실 혹은 시청각실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해도 반드시 컴퓨터실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의식하여 쉽게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학교도서관 시설 모형의 획일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일반적인 시설·설비 모형은 개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 모델이 미흡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③ 교육청 및 단위학교간 정보공유 부족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원대상학교간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을 설치하기 전 사전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나 시간이 촉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시회, 세미나 등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전문적 지식을 전수 받기에는 부족하다.

④ 다른 부서와의 협조 및 교실 부족학교 지원 문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시설설비분야는 물론 학교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 교실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여 학교도서관을 만드는데 따른 학교장 및 관리자의 거부반응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신축 교사(校舍)의 설계 시에 학교도서관과 같은 특수용도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확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서확충의 기준 재 설정과 불용도서 폐기기준의 간소화

학생 1인당 장서수를 몇 권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여 권장하다 보면 장서규모에 집착하게 되어 과거의 불용도서를 폐기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도서 폐기기준을 완화하여, 효용가치

가 없는 책들은 폐기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② 시설·설비 및 외형에 치중한 사업전개

일시적인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보기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업이 도서관 기본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서관의 외형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그리고 정보화도 중요하지만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강원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와는 별도로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학급당 2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의 경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자료구입비 150만원을 목적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학교 운영경비의 3~5%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③ 전자책(E-book) 및 디지털 원문자료의 확보방안

전자책의 선정과 구입, 제공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전자책을 자체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도교육청 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단위학교에 공급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전자책을 공급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책을 보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전자책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책 이외에 초·중·고등학생 용 원문정보를 공동구매, 개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의 인터넷 정보는 부정확하고 품질이 낮기 때문에 양질의 디지털 원문 데이터(예를 들면 사전류, 참고자료, 학생용 잡지, 교수학습 자료 등)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④ DLS(Digital Library System) 프로그램의 불만 요소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DLS 프로그램의 지원이 늦어져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서버가 불안정하여 다운이 잘 되고 접속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콜 센터(Call Center)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통화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개별 학교에서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목록데이터베이스를 불편함 없이 DLS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⑤ 교수-학습과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장도서목록과 자료의 다양화

자료중심의 교과학습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만큼 교과별 권장도서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권장도서목록이나 필독도서목록이 나와있으나 신뢰도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과별, 단원별, 주제별, 자료 형태별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목록이 있어야 단위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장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행본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한 DVD, VTR 등 영상, 전자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콘텐츠가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전개하려 해도 자료가 부족하여 실제 교과교사가 개별적으로 준비, 개발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5.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강화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화된 도서관 활용수업 모형개발 필요

아직은 도서관 활용수업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현장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일반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교수-학습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급별, 교과목별 모범이 될만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교과별로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수행평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라는 일반화된 기본모형을 개발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② 도서관 활용수업 자료부족과 개발의 필요성

2003년은 사업의 첫 해라서 시설·설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내년부터는 점차 안정적인 도서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교과별로 체계화된 자료개발이 필요하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작업은 시·도교육청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교과별 학교도서관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알맞은 자료목록이 필요하고, 현재 각 단체에서 발행된 상황별도서목록, 교과과정별 도서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학교에 알리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간자료가 개발될 때마다 자료목록을 갱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듀넷 혹은 DLS 시스템에 탑재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도서관 활용수업 전국대회 개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사례를 개발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규모, 지역, 과목 등에 적합한 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상, 포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④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미흡

독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사고력 신장 그리고 교과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교과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 학습과 독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독서=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독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이나 국어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과담당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기되었다.

① 사서교사의 확보에 관한 문제

시·도교육청 장학사, 학교장(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등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한결같이 사서교사의 배치를 들고 있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은 “사서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활성화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5년 후에는 수천억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학교도서관에 시설만 남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 사서교사를 총정원제에서 독립하여 확보하는 방안 ㉡ 학교도서관 활용 연구학교에 우선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정하는 방안 ㉢ 학교규모별로 배치기준을 만들어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소규모학교에는 순회사서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사서교사 복수전공제도를 도입하거나 잉여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사서교사로 전환시켜 주는 방안 ㉤ 교사 증원분 중에서 일정부분을 사서교사 지분으로 확보해야 하여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 1명씩 600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다.

② 보조인력 활용에 따른 문제

전담 사서교사의 배치가 당장 어렵다면 활성화 사업 지원금에서 계약직 사서라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계약직사서의 신분이 불안정하여 해당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로 계약직 사서 또한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계약직, 일용직 등의 보조인력은 정식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안 또는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사서보조 인력을 많은 학교에 배치할 경우 새로운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도서관 담당교사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도서관 담당교사는 담임과 수업시간수를 경감시켜 주고, 도서관 담당교사는 수당지급의 측면에서 담임과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하여 가산점 부여, 인사의 우선권 부여, 획기적인 포상제도 도입,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④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수업분담에 관한 문제

사서교사는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신임 사서교사의 현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임 사서교사들의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독서지도 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교양선택 등이 있어 사서교사도 교과수업이 가능하므로 독서교육, 도서관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일반교사의 수업시간 일부를 분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7.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문제

단위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는 학부모 연수,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학교도서관 지원단 운영 등 매우 효과적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자체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지역에

서는 공공도서관 직원부족으로 협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여 단순한 데이터 입력 수준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② 학부모도우미 운영 문제

도서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학부모의 활용은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홍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많은 학부모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도우미의 측면에서 볼 때 운영인력이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학부모들을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자원봉사자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의식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문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재단의 지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2~4배를 투자하여 도서관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IV.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개선방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면담 조사함으로써 2003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요망사항 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사업 개선 및 향후 사업추진에 기초자료가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체계

가. 지원대상학교 선정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및 단위학교별 계획을 고려하여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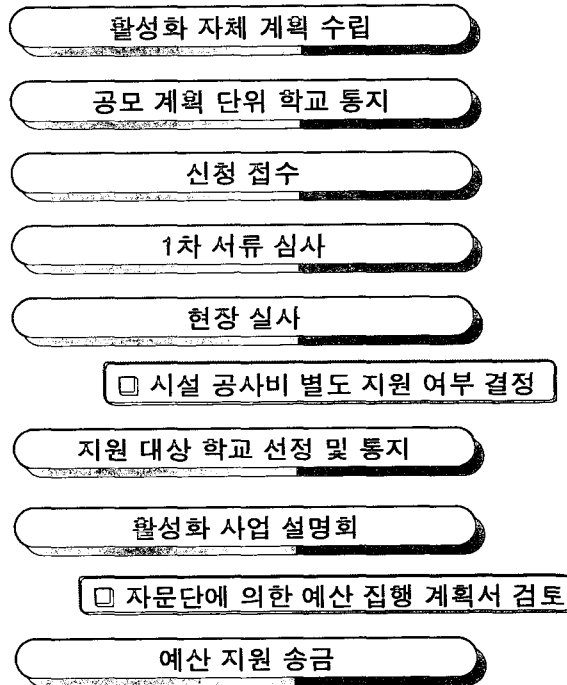
①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중학교 선발권한은 지역교육청으로 예산권한과 함께 이관함으로써 장학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으로의 이관이 어려우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1.5 혹은 2배수 추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지원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단 이외에 관련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전체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사업단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③ 활성화사업 자체 계획수립→공모계획 단위학교 통지→심사단 구성→신청접수→1차 서류심사→현장실사→지원대상학교 선정 및 통지→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설명회→예산지원 송금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설명회에서는 단위학교의 예산집행 계획서를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대상학교의 선정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벽면칠거 등 별도의 시설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한다.



<그림 1> 지원대상학교 선정의 절차

④ 교실 여유공간이 없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시설설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증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교무실 이전, 시설 변경, 신·개축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도서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차기년도에 지원대상학교 신청

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원대상학교의 선정을 겨울 방학이전에 완료하여 대상자 교육, 연수, 견학 등을 여유있게 실시하도록 한다.

나. 예산지원 방식

예산지원 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일방적인 세부지침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기본목표와 방향만 제시하고 지원금의 사용은 제시된 방향과 목표의 범위 내에서 개별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맞추어 집행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고지원금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지방비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원 함으로써 예산의 과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을 차등지원할 때에는 벽면 철거, 도서관 증축 등에 따른 시설 공사비의 별도지원, 시설·설비비와 자료구입비를 분리지원, 학교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이해를 구하도록 한다.

다. 추진 주체별 역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설 및 자료, 인적자원 등 학교도서관에 관한 제반 기준과 법령을 양적, 질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점차 시·도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에 일임하더라도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비전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자료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한 국가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네스코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도서관 선언(School Library Manifesto)」²⁾과 학교도서관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작성한 「학교도서관 지침(School Library Guidelines)」³⁾을 들 수 있다. 「학교도서관 선언」은 학교도서관의 이념과 목적, 예산확보를 위한 입법조치 및 네트워크구축, 관리·운영 등 6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도서관 지침」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양적, 질적 기준이 담겨있다.

②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지원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적인 장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반

2) IFLA,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 The School Library in Teaching and Learning for All*(1999), <<http://www.ifla.org/VII/s11/pubs/manifesto.htm>> [cited 2004. 8. 15].

3) IFLA,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2002), <<http://www.ifla.org/VII/s11/pubs/sguide02.pdf>> [cited 2004. 8.15].

영하여 학교도서관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장기적이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운영지침」에 학교도서관의 활용과 적용방안을 삽입하는 문제는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③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은 물론 일반교사의 인식을 높이고,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등 내실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가. 기본시설

① 학교도서관의 교육필수 시설화 및 지침마련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은 과거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7년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제정으로 폐기되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특별교실의 일부분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설비 종목만을 열거하고 있는 정도이다.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는 학교의 다른 시설과 달리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보다는 국가수준에서 기준을 명시하거나 지침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는 최소한 학교도서관의 기준면적, 갖추어야 할 공간의 종류 및 시설, 갖추어야 할 정보자료의 종류와 수량이 명시되어야 하고,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필수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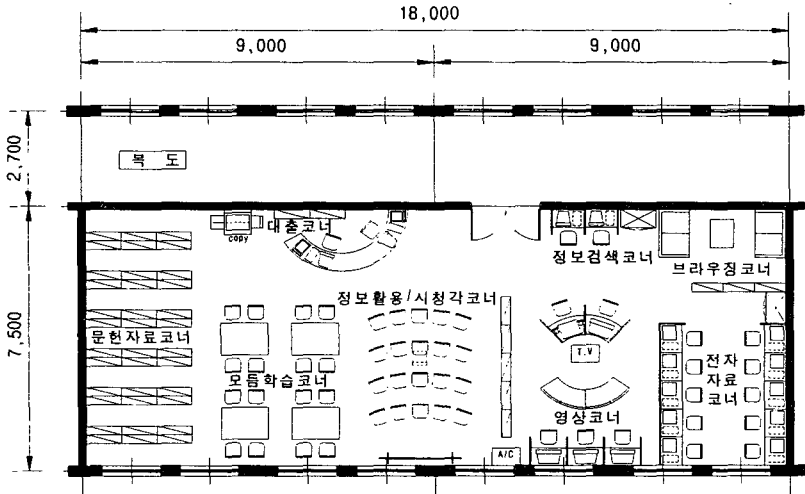
②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지원을 위한 사이트 운영

시·도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교육인적자원부 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우수한 학교도서관의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을 탑재하고, 각 전문업체의 제품정보, 가격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든지 쉽게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가구 및 비품, 정보기기의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도서관 시설모형의 다변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나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에서 제시된 학교도서관의 시설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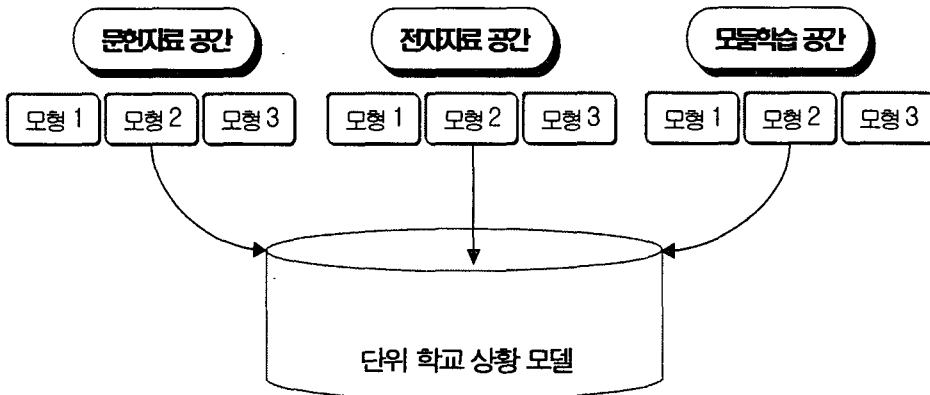
은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교도서관의 공간을 규모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교실 2칸 규모의 학교도서관 평면도⁴⁾

이러한 모델은 일반적인 시설·설비 모형은 될 수 있으나 단위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변형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 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도, 기준 등이 있으나 일반교사가 도서관시설을 설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림 3>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코너별로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그림 3> 학교도서관 시설 모형의 다변화 개념

4) 이희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연구(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pp.302-303.

④ 다른 부서와의 협조 및 교실부족 학교 지원문제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시설설비분야는 물론 학교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실공간의 여유가 없어서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설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실공간의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증축 예산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교실을 증축하여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다.

나.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 1인당 장서량을 10권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향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장서확충의 기준 재설정과 불용도서 폐기기준의 간소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적 수준에서 학교도서관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학교도서관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에는 시설, 자료, 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학교 급별, 자료의 형태별로 기본자료수, 연간증가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 1인당 장서수를 몇 권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여 권장하다 보면 장서규모에 집착하게 되어 과거의 불용자료를 폐기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장서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10년인 점을⁵⁾ 고려하여 전체 장서 중 10년 이내에 발행된 장서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해 놓아야 낡은 자료를 쉽게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폐기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불용자료를 간편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신간자료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목적경비 교부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는 주로 시설공사, 가구 및 비품구입, 정보기기 확보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예산에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학교운영비의 3~5%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는 예산 배정 과정의 우선권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운영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목적경비로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Blanche Woolls, *The School Library Media Manager*(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4), pp.169-170.

③ 전자책(E-book) 및 디지털 원문자료의 확보방안

전자책과 디지털 원문자료는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에서 공동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상용업체에서 개발한 전자책이나 디지털 원문 등을 그대로 구입하여 서버에 탑재하는 것만으로는 효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급별, 교과별,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요구를 조사하여 수요에 따른 전자책과 디지털 원문자료를 상용업체들이 제작하도록 유도하거나 국가에서 직접 제작해서 보급해야 한다. 전자책은 특히, 문학작품 위주의 전자책에서 탈피하여 초·중등학생용 전자저널, 학습참고자료 등의 형태로 다변화해야 한다.

DLS와 유사한 오리건주의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은 전자책과 디지털 원문자료를 단위학교에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⁶⁾. 이 시스템은 주교육청과 도서관서비스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⁷⁾에 의거 기금을 출원하고, 교육매체협회(OEMA), 교육기술협회(OETC), 오리건주 교육전산망(OPEN) 등의 단체가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EBSCO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독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주(州) 내의 모든 학교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EBSCO 원문 데이터베이스는 500개 이상의 연속간행물과 미국사(史)에 대한 1,000여건의 문서, 동물관련 백과사전, 세계지도, 150개 이상의 신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 웹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각급 학교도서관에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 이외에 다른 잡지와 신문을 다수 구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④ DLS의 불만요소 해결

DLS는 중·소규모의 디지털도서관 구축모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ASP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ASP(application services provider)는 일정한 장소에 하드웨어와 S/W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PC만으로 업무처리는 물론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방식을 말한다. 하드웨어 시설, 예산 그리고 관리, 운영의 측면에서 디지털도서관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타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단위학교의 담당(사서)교

6) 오리건주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http://www.oslis.k12.or.us>> [cited 2004.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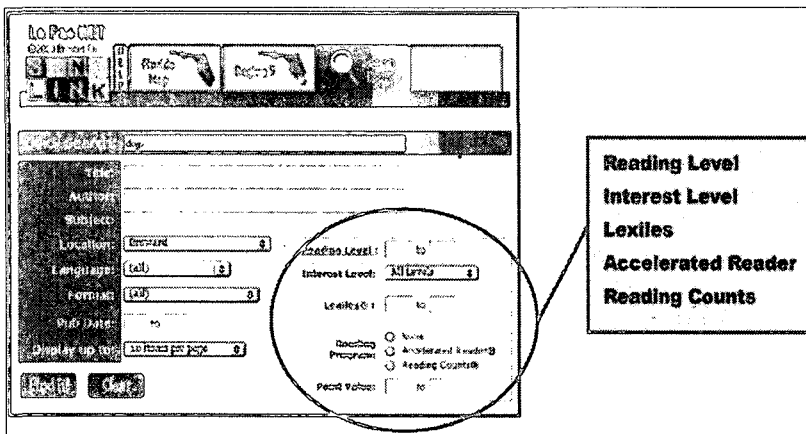
7) *The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s*, <<http://www.ala.org/ala/washoff/WOissues/federallibprog/1sta/1sta.htm>> [cited 2004. 8.15].

사는 DLS 시스템을 의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⑤ DLS를 통한 권장도서목록, 교수-학습자료목록의 체계적 관리

현재 여러 기관에서 권장도서, 필독도서목록 그리고 상황별 도서목록, 단원별 교과학습 목록 등이 나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 리스트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신간자료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목록을 관리, 유지하지 않으면 효용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DLS를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교수-학습자료목록 혹은 권장도서목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플로리다주 교육청에서 자금을 출원하고, 플로리다 센트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SUNLINK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은 주(州)내에 있는 2,18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학교는 웹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⁸⁾. 이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서명, 저자와 같은 기본적인 서지사항 이외에 교과별, 독자의 독서수준, 흥미수준에 따라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양질의 목록관리는 물론 독서교육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 출처 : <http://www.sunlink.ucf.edu/new/searchInfo.html#reading>
 <그림 4> SUNLINK의 독서수준, 흥미수준, 독서점수별 목록관리 사례

8) 플로리다주 교육청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http://www.sunlink.ucf.edu/>> [cited 2004.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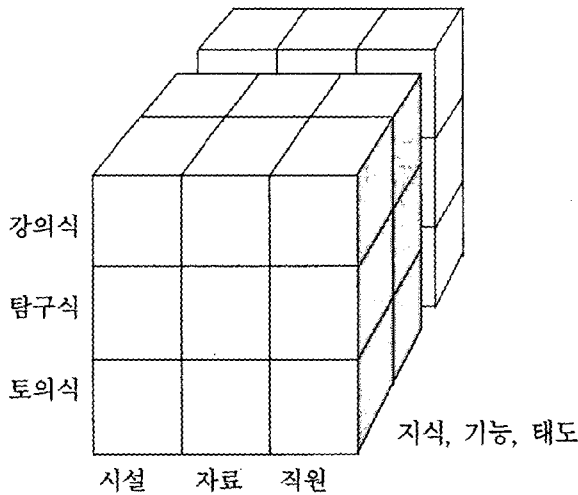
3.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도서관활용수업 모형개발 보급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구, 시범학교를 통해서 매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관한 현장 연구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방향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학습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자원, 정보자원, 인적자원의 특징과 교과목의 특징(지식, 기능, 태도), 교수-학습모형의 특징(강의식, 탐구식, 토의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례별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모형을 연구,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5>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모형의 영향 요인

그 이외에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서 블록형 시간표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일정 시간단위의 고정된 시간표로는 시간이 너무 짧고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관련 교과목을 묶어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블록형 시간표(block schedule)에⁹⁾ 대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ixth Grade(6학년)	Seventh Grade(7학년)	Eighth Grade(8학년)	
8:30	Home Base(아동활동)	Art Music	Planning (탐구활동)	
9:00	Basics (교과강좌)			Exploratory
9:30				
10:00				
10:30		Basics(교과강좌)	Art Music	Planning (탐구활동)
11:00			Exploratory	
11:30				
12:00	Lunch(점심)			
12:30	Art Music	Planning	Lunch(점심)	
13:00	Exploratory	(탐구활동)	Home Base(학생활동)	
13:30			Lunch(점심)	
14:00	Basics(교과강좌)	Basics(교과강좌)	Basics(교과강좌)	
14:30			Home Base(학생활동)	
15:00				

<그림 6>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한 블록형 시간표

나. 도서관활용수업 자료부족과 개발의 필요성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연구팀을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자료와 연계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에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수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의 어느 부분을 어떤 교과목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자료를 상호 공유할 때 다른 교사들이 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일정 분량 쌓일 때까지는 교과연구회 등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개발하여 DLS를 통해 공유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수사례를 개발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시·도별 혹은 전국적인 규모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동기유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도서관활용수업 운영지침 마련

도서관 활용수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많은 연수를 실시한다 해도 교과 담당교사의 자율적인 의지에 맡기다 보면 특정 교사와 교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운영지침에는 학교

9) Jane Bandy Smith, *Achieving a Curriculum Based Library Media Center Program*(Chicago and London : ALA, 1995), p.21.

도서관 활용수업의 성격, 목표, 단계별 지도내용, 시·도교육청의 임무, 학교 단위의 임무,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의 방법, 교과별 활용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학습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에 독서 활동 영역을 포함시키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교과와 관련된 독서시간과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 교과별 독서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개의 교사들이 교과와 관련된 독서교육자료를 스스로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DLS에 웹 기반의 독서교육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교사들이 교과 관련 독서자료를 개발, 공유하고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과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4.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는 최소 1명의 관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향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사서교사의 확보에 관한 문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의 제33조, 34조, 35조에서 각각 “초등학교에는 …, 중학교에는…, 고등학교에는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에 의거 총 정원제에서 독립하여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 1명씩 600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 판단된다.

지역교육청별로 사서교사가 1명씩이라도 있어야 담당교사, 지역 학부모도우미, 사서보조원 등에 대한 연수와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읍·면, 도서지역의 정보격차와 정보

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분담에 관한 문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급별 구분(초·중·고)없이 사서교사에 관한 자격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지원, 정보활용능력 지도 등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교양선택 등이 있어서 사서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과 시간의 일부를 교과에 대한 정보활용능력 지도, 교과 관련 정보과제 해결 방법 등을 지도함으로써 교과교사의 시간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에 관한 문제

학교도서관에 대한 강의를 처음으로 듣는 학교장이나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연수를 전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연수의 시간과 횟수를 늘려 실무, 현장 위주의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담당교사의 연수는 60시간 이상으로 하여 연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직무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연수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직원회의시간이나 다른 연수과정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영상자료를 간단하게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비디오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 비디오 자료는 학교도서관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사례,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사례, 도서관 활용을 위한 학생들의 과제부여 등에 대한 사례와 실제 적용방법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지역단위의 민관협력운동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되, 향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문제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여 단순한 데이터 입력 수준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학부모도우미 운영 문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지 말고,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NGO 단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언론매체 혹은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동문회, 지역사회 유지 등이 학교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교육혁신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① 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지원대상학교 선정의 주체, 예산의 부족과 차등 지원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조정 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②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공간확보의 문제, 학교도서관 시설모형의 획일화,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청 및 단위학교간 정보공유 부족, 다른 부서와의 협력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③ 장서확충과 관련해서는 장서확충의 기준 재설정과 불용도서 폐기기준의 간소화 문제, 시설·설비 및 외형에 치중한 사업전개 문제, 전자책(E-book) 및 디지털 원문자료의 확보 문제, DLS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장도서목록의 부재 등이 제기되었다.

④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와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도서관활용수업 모형의 부재, 도서관 활용수업 자료부족,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⑤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서교사의 확보에 관한 문제, 보조인력의 신분 불안정, 이론에 치중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문제, 연수자료의 부재,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과 학교도서관 기피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⑥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미흡,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학부모도우미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요망사항을 바탕으로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사업 추진과 장학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별도의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국가수준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의 학교도서관의 기준면적, 갖추어야 할 공간의 종류 및 시설, 갖추어야 할 정보자료의 종류와 수량이 명시되어야 하고, 학교도서관을 필수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절대적으로 교실공간이 부족한 학교를 위해서 각종 특별교실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실공간의 여유가 없어서 학교도서관을 설치할 수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설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증·개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시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국가수준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모형을 사례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특정 교사와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조치로 국가수준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학습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④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중 사서교사의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 1명씩 약 600여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인력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계약직 사서보다는 과학보조나 전산보조원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사서보조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서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에 있어서는 연수의 시간과 횟수를 늘려 실무, 현장위주의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⑤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여 단순한 데이터 입력수준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도우미는 자

너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그 동안 열악했던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과 정보자료를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교육 혁신의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 국가기준 및 지침 마련, 학교도서관 관련 활동의 교육과정 반영,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학교도서관 관련 국가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별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독서교육을 통한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교수-학습자료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학교도서관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3.
- 박재윤. 미래학교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 변우열, 한상완, 이병기.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 송기호.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0.
- 이병기.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규모별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pp.49-67.
- 이희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99.
- 한상완 등.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에 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 작업단 구성 운영.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한운옥. 지식정보시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개발.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 Albright, Michael J. "The Future of Campus Media Centers."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Vol.51, No.3(1992), pp.91-100.
- Albright, Michael J. and Lynn Milet. "Media Centers in Transition : Results of a 1997 CCUMC

- Member Survey.” *College and University Media Review*, Vol.4, No.1(1997), pp.11-41.
- Crawford, Walt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 Dreams, adness and Realit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5.
- Haycock, Ken. *Foundations for Effectiv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9.
- Heinich, Robert, Michael Molenda and James D. Russell. *Instructional Media and the New Technologies of Instruction*. 3rd ed. New York : Macmillan, 1989.
- Johnson, Doug. *The Indispensable Librarian : Surviving and Thriving in School Media Centers in the Information Age*. Worthington : Linworth, 1997.
- Kuhlthau, Carol Collier. *Assessment &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4.
- Morris, Betty J., John T. Gillespie and Diana L. Spirt.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3rd ed. New Providence, N. J. : Bowker, 1992.
- Prostano, Emanuel T. and Joyce S. Prostano.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Englewood : Edacher Ideas Press, 1999.
- Schmidt, William D. *Learning Resources Programs That Make a Difference*. Washington :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87.
- Stein, Barbara L. and Risa W. Brown. *Running a School Library Media Center : A How-to-Do-It Manual for Librarians*. New York : Neal-Schuman, 1992.
- No Child Left Behind : A Desktop Reference*. Washington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 Van Orden, Phyllis J. *The Collection Program in School : Concepts, Practices and Information Sources*. Enfo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5.
- Vlcek, Charles W. and Raymond V. Wiman. *Managing Media Services : Theory and Practice*.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89.
- Willams, C. Joseph and Charles R. Crowell.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Educational Technologies.” *T.H.E. Journal*, Vol.20, No.11(1993), pp.114-118.
- Yrchik, John and John Cradler.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Requireme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 *Tech Trends*, Vol.39, No.4(1994), pp.32-34.